

민주-평화당 광주 5개 구청장 대결 운곽

민주당 내일까지 예비후보 개별 면접 마무리 계획

평화당 동구 김성환·북구 이은방·광산 이정현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평화당도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자 1차 명단을 확정 지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후보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했고, 오는 17일까지 5곳 자치단체장 경선 후보들에 대한 모든 면접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 13일 시작된 민주당 광주시당의 광주지역 기

초단체장 면접에는 24명이 참여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강수훈, 임택, 양해령, 강신기(이하 민주당 연번 순) ▲서구 김영남, 김금림, 김보현, 김성현, 서대석 ▲남구 최진, 임형진, 정재수, 김병내 ▲북구 조오섭, 문상필, 문인, 김상훈 ▲광산구 김형수, 임한필, 김영록, 윤난실, 윤봉근, 장성수, 김삼호 등이다.

민주당 시당은 경선 후보들에 대한 공관위 면접 등을 통해 각 자치구별로 경선 후보 2~3명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평화당도 15일 광주지역 구청장에 나설 3명의 후보를 우선 확정했다. 평화당 시당 공천관리위

원회는 전날 오전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3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동구 김성환(현 동구청장) ▲북구 이은방(광주시의회 의장) ▲광산구 이정현(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공천자 명단은 오는 16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평화당 시당 공관위는 오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31명에 대해 후보자 면접심사를 실시해 2차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당 공관위는 2차 추천 공모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 북구3, 북구6 등 8곳의 후보자 선출을 위해 전 당원 투표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인물난 속에서도 4월말까지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 광역·기초의원 공천작업 속도

민주, 광역 9곳 공천·11곳 경선

평화, 광역의원 6명 1차로 확정

(서구2·남구3·광산4)는 모두 경선을 한다. 경선 선거일은 28~29일로 권리당원 100% ARS 투표로 치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의원 공천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광역의원 후보자 일부를 단수 공천하는 등 뒤늦게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3일 광주 광역의원·기초의원 단수후보자 및 최종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광역의원 20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는 단수 공천했고, 나머지 11개 선거구는 최종경선 후보를 2명에서 3명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루도록 했다.

단수공천 선거구는 ▲동구2(박미정) ▲서구4(황현택) ▲남구2(김점기) ▲북구1(반재신) ▲북구2(이경호) ▲북구3(신수정) ▲북구5(김동찬) ▲북구6(김나운) ▲광산2(정무정)이다. 나머지 11개 선거구는 2~3인씩 복수 공천했다.

여성선거구로 지정된 4개 선거구 중 단수 선출지역인 북구 3선거구를 제외한 3개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면 48시간 동안 재심청구 기간을 거처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민주당 공식 선거후보자로 확정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광주지역 5곳 기초의원 20개 선거구에 52명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선거구별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나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ARS투표를 통해 가·나·다 기호를 부여받는다. 기초의원 경선 선거일은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도 15일 광역의원 후보자 1차 명단을 확정했다. 6명을 우선 후보로 확정해 선발대로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광역의원 후보는 ▲북구1 오동오(북구 문화원장) ▲북구2 장희연(평화당 광주시당 부대변인) ▲북구4 장영희(북구의원) ▲서구3 신태양(전 호남대 교수) ▲남구3 박춘수(광주시의회 부의장) ▲광산2 문태환(광주시의원)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불가...현직 프리미엄 사라져

단체장들 5월초 예비후보 등록 가능성

6·13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들의 등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인 14일부터 자치단체장은 정당·정파·정책,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등도 방문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료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박홍을 목포시장과 주철현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에서는 5월 초에 현역 단체장

들의 출마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조기 출마로 행정 공백을 야기한다’는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일단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출마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정치적 이슈에 묻혀 언론 등의 관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데다 선거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권자를 접촉하기 위해 각종 단체 등의 행사가 집중된 5월 초 출마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군수들도 사정은 비슷해 5월 초·중순을 D 데일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6.13 선거 현장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백재욱 “조선산업 침체 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해야”

백재욱 더불어민주당 영암구인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고용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예비후보는 “조선업 불황으로 대불산업단지 는 거의 폐업상태로 2016년 대비 고용이 50% 감소

한 고용 절벽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암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대불산단 재생·발전 프로젝트를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군수 후보

강진원, 농업소득배가 5개년 프로젝트 추진할 것

강진원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15일 농업소득배가 5개년 프로젝트 추진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신전초등학교에 열린 제28회 신전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농가당 70만원 지급(논·밭 300평 이상 경작 농가)을 할 수 있는 농업경 영안정자금 88억원 확충, 군 농업 예산 5000억원 시

대, 농수산분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면서 “지금 이 강진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중단 없는 강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군수를 비롯해 백남태 신전면장과 18개 마을 이장과 주민, 윤장학 재경신전면 향우회장 등 총합인 8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고령화시대 어르신 복지’와 지역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석원 “지역민들로부터 직접 공약 제안 받겠다”

김석원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예비후보는 최근 “해남 군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민들로부터 직접 공약을 제안 받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군민 참여로부터 시작하고 지방분권도 지역주민에게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

며 “군민들이 군수공약에 참여토록 길을 열어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 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은 농수산업, 주민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제안을 받는다”면서 “제안된 공약은 군민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분석해 군민을 위한 ‘참여와 동행공약’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군조 “원도심 활성화 조례 만들어 명품시가지 추진”

박군조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15일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담양읍·장평면·수북면·대전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명품시가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구제 방안으로 담양읍 중앙로에 보행자 전용가로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광장 확

충, 건축물 파사드, 옥외광고물·가로시설물 개선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 장흥 토요시장 공연장서 군수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인 김성 군수는 지난 14일 장흥 토요시장 공연장에서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인생에서 2차례 기적을 경험했다”며 “마지막 3차례 기적은 길게 흥하는 장흥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최고 건강·치유 1번지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스포츠와 레저가 함께 공존하는 관광과 휴양의 메카로 장흥을 발전시켜 ‘탐진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2018 유은동문 제22회 한마음 대축제

13만 유은동문의 힘!
하나된 유은, 함께하는 동문!

일시 2018. 4. 22 (일) 오전 10시
장소 광주여상고 운동장
주최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 (광주여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
주관 광상37회·여상25회 동창회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
www.dongmuni.com / 062)361-2680
광주여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